

의식의 확장: 새봄을 맞이하는 농부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룰 줄 아는 리더는 훌륭한 소통능력과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지게 되며, 매 순간순간 일상에서 행복감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동료와 팀과 조직에 지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지식들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시대를 창출하고 있는 구글(Google)은 오늘날 지구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인 동시에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집단임에 틀림없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양의 지식들을 매일같이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내고 있으며, 그들의 1초 1초는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파고들며 어떤 권력집단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구글에는 ‘내면검색프로그램(search inside yourself)’이라는 독특한 사내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명상훈련을 통해 구글러(Googler)들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과정으로서 조직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는 매년 2월 Wisdom 2.0이라는 세미나가 열린다. 여기에는 Google을 비롯해서 Twitter, Facebook, LinkedIn과 같이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직원들의 행복과 일터에서의 삶의 가치 그리고 명상을 통한 회복탄력성의 강화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며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선형적이지 않고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 자체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희망을 찾고자 하는 것이며, 개개인의 의식이 확장됨으로써 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있었던 ‘2013 Spring CARROT 리더십 워크숍’에서 ‘의식이 커가는 조직’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단연 리더들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것이 CEO로서 나에게 주어진 가장 절박한 미션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의 수준이 조금만 올라가도 기존에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며,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창조성이 움트게 될 것이다. 마치 농부가 새 봄을 맞이하여 밭을 갈고 생명의 씨앗들을 파종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마음챙김을 훈련하는 일 중 일상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것은 먼저 상황이나 문제를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즉 잘잘못을 따지는 분별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분별심을 가지는 순간에 ‘감정’의 덩어리가 엉겨붙어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차단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안에서 이러한 분별심이 이는 마음을 잘 지켜보고 느끼는 것에 민감해질 수 있다면 자신의 에너지를 훨씬 잘 관리하고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룰 줄 아는 리더는 훌륭한 소통능력과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지게 되며 매 순간순간 일상에서 행복감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동료와 팀과 조직에 지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 봄을 맞이하는 농부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마음의 연장을 갈고 다듬어야 할 때다.

We Serve The Global Success!
Written by C.E.O James Roh (노상충)

내적 평화와 지혜가 없다면 행복에 필요한 그 무엇도 없는 것과 같다. _마티외 리카르



James Roh

